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3.2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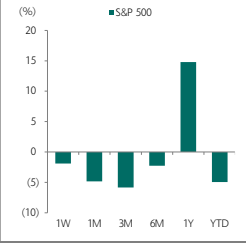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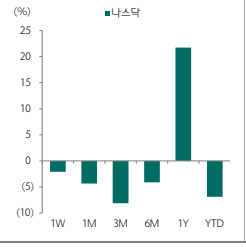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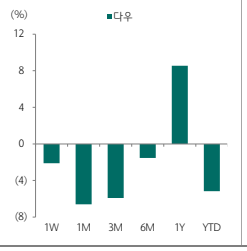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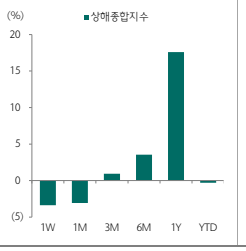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FERC의 정책: 단기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나 구조적 문제는 아닐 것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전력 인프라 증설 촉진 & 빅테크와의 협상이 중요

- 지난주 미국 섹터 중 유틸리티의 주가가 가장 부진했다. 높아진 금리, 유가 상승,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 약화 등의 악영향도 있었겠지만, 방어적인 섹터의 가장 큰 폭 하락은 산업 내 개별 이슈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FERC(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뉴잉글랜드 송전 사업자들의 송전 자산에 적용되는 기본 허용 ROE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송전 자산의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야기됐다. 미 정부의 전기료에 대한 기조는 높아진 유틸리티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다. 섹터 변동성은 발생했지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게 아니다. 2011년부터 있던 뉴잉글랜드 송전 사업자의 높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틸리티 기업 전반의 문제로 보는 것은 과하다.
- 단기적으론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해질 순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신규 전력공급, 송배전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틸리티 기업들과 빅테크 간 비용분담 구조와 협상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데이터센터 및 제조업 리쇼어링 등으로 전력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까지 감안하면 유틸리티 기업들의 협상력이 기술기업들보다 일방적으로 약하다고 보긴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전력공급 확대와 관련해 인프라 증설 별도 요금 구조 협상에도 우호적이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대형 전력 수요자에 대한 비용 분담 확대, Co-location 및 전용 전력조달구조, 대형 부하 연결 절차 변경, 송전 투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유연한 전력수요 유도 등).
- 현지시각 3월 19일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있었다. FERC는 뉴잉글랜드 송전 사업자들에 대해 송전 자산에 적용되는 기본 허용 ROE를 10.57%에서 9.57%로 100bps 인하했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ROE 상한은 12.09% 수준이다. FERC 관할 송전 요금체계는 전체 규제자산에 대해 허용 자본비용을 반영한 서비스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는 구조다. 요금 원가에 운영비, 감가상각, 세금, 부채비용, 자기자본비용 등이 포함된다. 자산 설치 규모, ROE, 반영 가능한 비용 범위 등이 유틸리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 요금과 수익률은 통제되지만 인정받는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이익 총액은 확대될 수 있다. 유틸리티 실적에 중요한 건 추가 마진 확대 여부보다 자산 확대(Rate Base Growth) 능력이다. 송전선, 변전소, 배전망, 발전설비 등에 더 투자해 규제자산이 늘어나면 같은 ROE가 적용되더라도 이익은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총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처럼 ROE가 내려가면 이익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의도 중 하나는 부족한 전력 인프라를 빠르게 더 늘리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 FERC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미국 유틸리티 섹터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업종 전반의 구조적인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뉴잉글랜드 송전 자산 관련 직접 영향권에 있는 상장사는 Eversource(ES), PPL(PPL), National Grid(NGG) 등으로 이들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나, 그 외 기업들은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과거부터 이어진 뉴잉글랜드의 개별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며, 다른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 아래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 소비자보다 대형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형 부하와의 비용분담 구조가 유리하고 Rate Base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6,506.5	21,647.6	45,577.5	3,957.1	2,589.1
1W (%)	-1.9	-2.1	-2.1	-3.4	-4.2
					

주) 3월 13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3월 16일~3월 20일) 리뷰: 지정학적 위기가 자극한 통화정책 불안 지속

- 지난주에도 미국증시 주요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야기한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증시 3대 지수인 다우, S&P 500, 나스닥은 각각 2.1%, 1.9%, 2.1% 하락했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1.7% 하락했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1.8% 내렸다.
-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WTI는 98 달러, 브랜트는 112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지시각 1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피격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준위원들의 태도는 다소 보수적이었다. 전통적인 연준의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기조는 일시적이지만, 높은 물가 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영향력을 가볍게 치부할 순 없었을 것이다. 연준은 개별 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둘기파'로 다시 분류됐던 월러 연준 이사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지시각 20일 유가 상승이 야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 기존 금리 인하 입장 대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2월 부진한 고용보고서를 본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 의견을 낼 작정이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에 대해 기존 생각보다 더 큰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불안도 있었다.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캐빈 워시의 상원 인준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파월의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은 수사가 끝나야 연준의 정상화 및 차기 연준 의장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연방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연준 인사 지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의장은 후임이 선정되기 전까지 현 의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트럼프 행정부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불편한 상황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해상에 부유하고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대 2주 정도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이란산 원유로 이란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발언했다. 러시아 원유 제재 가능성도 오르내리는 상황이며, 국가 비축유도 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부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에너지(+2.8%), 금융(+0.4%)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다. 에너지는 유가 상승이라는 긍정적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하락 상위는 유틸리티(-5%), 소재(-4.5%), 필수소비재(-4.5%) 등이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가격 변동은 각각 -2.2%, -1.4% 등이다.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더 컸다. M7 기업들로 구성된 ETF(MAGS)와 非-M7으로 구성된 ETF(XMAG)의 수익률은 각각 -2.6%, -1.4%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M7 기업들은 모두 하락했다(GOOGL -0.4%, AAPL -0.9%, AMZN -1.1%, MSFT -3.5%, META -3.3%, NVDA -4.2%, TSLA -5.9% 등).

≫ 이번 주(3월 23일~3월 27일) 프리뷰: 지정학적 리스크, S&P 500 리밸런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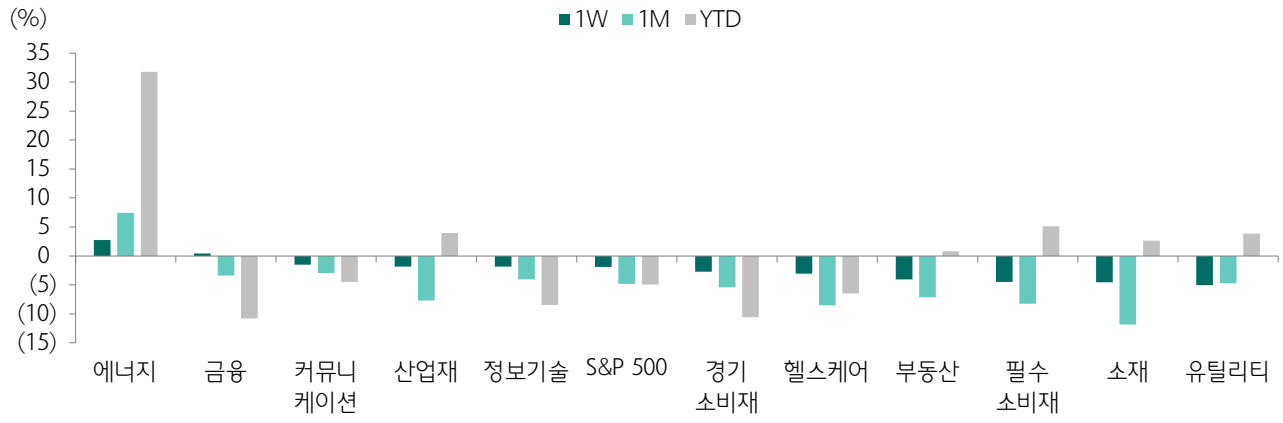
- 이번 주에도 시장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에 주목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란은 중동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너지 및 정보기술, 담수화 시설 등을 전면 타격하겠다고 대응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 후 이란 정부와 보안 및 안전 관련 조율을 거친다면 적을 제외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과 군사 작전의 점진적 축소 고려 등을 언급한 후 나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란의 요구사항은 즉각적인 휴전, 향후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전쟁 배상금 등이라고 한다. 미국의 요구는 5년 동안 미사일 프로그램 전면 중단, 우라늄 농축 제로화,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핵 시설 폐쇄, 원심 분리기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감시 프로토콜 구축, 미사일 보유 한도 제한, 대리 세력(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현지시각 23일 장 시작 전 3월 6일 공지한 S&P 100, S&P 500, S&P Mid Cap 400, S&P SmallCap 600의 분기 리밸런싱이 적용된다. S&P 500에선 매치 그룹(MTCH), 몰리나 헬스케어(MOH), 램 웨스턴 홀딩스(LW), 페이컴 소프트웨어(PAYC)이 편출된다. 버티브 홀딩스(VRT), 루멘텀 홀딩스(LITE), 코히어런트(COHR), 에코스타(SATS) 등은 편입된다. LITE, COHR, SATS 등은 MidCap 400에서 S&P 500으로 승격됐다. 편출된 기업들은 SmallCap 600으로 이동했다. S&P 100 엔 마이크론(MU), 램리서치(LRCX),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GE 버노바(GEV) 등이 편입됐고, 페이팔 홀딩스(PYPL), AIG(AIG), 메트라이프(MET), 타겟(TGT) 등이 편출된다. MidCap 400엔 솔스타이스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SOLS), 사이타임(SITM), 무그(MOG.A), 인터디지털(IDCC), 바이코(VICR), 케어트러스트 리츠(CTRE) 등이 편입된다.
- 1월 미국의 건설지출의 컨센서스(MoM +0.1%)는 이전치(MoM +0.3%)보다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 건설 조사 기업 Dodge Construction Networks의 건설 착공 지수(Dodge Construction Starts)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1월 건설 착공지수는 MoM +1%로 12월 MoM +3% 대비 둔화됐다. 2월엔 MoM -13.2%였다. 1월 Dodge Construction Starts의 주거용 건설 착공 중 단독주택(MoM +1.5)은 양호했으나, 다가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7.8% 줄었다. 비주거용 건설 착공 중 제조업 착공이 전월 대비 97.5% 급증했는데 Census의 건설 지출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 24일 미국의 생산성 지표가 발표된다. 임금이 상승하는 속도 대비 기업의 생산 효율 변화를 시사한다.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도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생산성이 낮아지고 단위노동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은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입해야 한다. 높아진 비용은 가격 인상을 전가될 여지도 있다.
-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다. 지정학적 불안의 장기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기대지수의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 2월 발표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으나, 부진하게 나올 여지도 있다. 중동 전쟁이 유발한 물가에 대한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며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상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23일 1월 건설지출(MoM, 예상치 +0.1%, 이전치 +0.3%), 24일 1분기 애틀랜타 GDPNoW(예상치 2.3%, 이전치 2.3%), 3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이전치 51.6), 25일 30년 모기지 금리(이전치 6.3%), 2월 수입 지수(MoM, 예상치 +0.2%, 이전치 +0.2%), 수출 지수(이전치 +0.6%),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615만 6,000 배럴), 26일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예상치 211,000 건, 이전치 205,000 건), 27일 3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예상치 54.1, 이전치 54.1), 3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1년, 예상치 3.4%, 이전치 3.4%), 3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5년, 예상치 3.2%, 이전치 3.2%)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연준 인사로는 25일 바 연준 부의장(투표권 있음, 중립), 27일 쿡 연준 이사(투표권 있음, 다소 비둘기), 제퍼슨 연준이사(투표권 있음, 비둘기), 바 연준 부의장(투표권 있음, 중립) 등이 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25일 CTAS / PAYX / CHWY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3/20)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6,632.2	-0.6	-1.6	-3.0	-2.5	0.4	17.6	-3.1
나스닥	미국	22,105.4	-0.9	-1.3	-2.0	-4.4	-1.0	24.5	-4.9
다우	미국	46,558.5	-0.3	-2.0	-5.9	-3.2	1.7	12.2	-3.1
STOXX600	유럽	595.9	-0.5	-0.5	-3.7	2.8	8.2	9.0	0.6
KOSPI	한국	5,487.2	-1.7	-1.7	-0.4	37.2	59.1	113.8	30.2
KOSDAQ	한국	1,153.0	0.4	-0.1	4.2	25.9	35.3	57.0	24.6
상해종합지수	중국	4,095.4	-0.8	-0.7	0.3	7.1	6.0	19.8	3.2
심천종합지수	중국	2,701.4	-0.9	0.1	0.8	11.7	8.5	28.1	6.7
항셍테크지수	홍콩	25,465.6	-1.0	-1.1	-4.6	0.9	-3.7	6.3	-0.6
TOPIX	일본	3,629.0	-0.6	-2.4	-4.2	7.7	14.5	33.6	6.5
니케이 225	일본	53,819.6	-1.2	-3.2	-5.3	9.0	19.9	45.2	6.9
니프티 50	인도	23,151.1	-2.1	-5.3	-9.9	-10.5	-8.3	3.4	-11.4
Vietnam	베트남	1,696.2	-0.8	-4.1	-7.0	1.0	0.9	27.9	-4.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3.2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유발한 유가 상승이 긍정적 모멘텀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유틸리티: 미국 에너지 연방 규제 위원회의 뉴잉글랜드 사업자에 대한 ROE 축소 발표에 수익성 훼손 우려 발생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3/16	**엔비디아 GTC 키노트 핵심은 '추론 AI'…젠슨 황 "변곡점 도래"** •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젠슨 황 CEO는 3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기조연설을 통해 AI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며 변곡점 도래를 강조. 이에 맞춰 AI 컴퓨팅 구조를 기존 GPU 중심에서 GPU·LPU·CPU로 확장하고,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에 추론 전용 칩 '그록3(Groq3 LPU)'를 결합하는 구조를 제시했으며, 신규 CPU '베라(Vera CPU)'도 함께 공개. 또한 차세대 GPU 로드맵을 제시하며 GPU 단일 제품을 넘어 CPU, 추론 칩,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AI 인프라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AI 칩 시장 규모가 내년 최소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3/17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WTI 5.3% 급락** •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와 IEA의 추가 비축유 방출 가능성, 미·이란 대화 기대까지 맞물리며 공급 차질 우려 완화. 이에 따라 WTI는 장중 하락폭을 확대하며 전일 대비 5.3% 급락,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이란 측은 일부 국가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하고 있음을 시사했고, 미국 역시 원유 공급 흐름 유지 의지를 확인.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발언과 국제 공조 언급까지 더해지며 유가가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 에너지 자산 전반에 매도 압력 확대
3/18	**미국 2월 PPI 예상 상회…전쟁 이전부터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 미 노동부,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MoM +0.7%로 시장 예상치(+0.3%)를 크게 상회했다고 발표. 근원 PPI도 +0.5%로 예상치를 웃돌며 10개월 연속 상승, YoY 기준 3.4~3.5%로 상승폭 확대. 해당 지표는 이란 전쟁 이전 수치로, 이미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했음을 시사. 이후 유가 급등까지 반영될 경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
3/19	**美연준,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올해 1회 인하 유지** • 美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하며 2회 연속 금리 유지 결정. 지난해 말 세 차례 인하 이후 올해 1월부터 동결 기조 지속. 성명에서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은 둔화된 가운데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중동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언급. 점도표에서는 올해 0.25%p 기준 1회 추가 인하 전망을 유지하며 금리 경로 변화는 제한적. 이번 회의에서는 12명 중 11명이 동결에 찬성, 1명만 인하를 주장했으며 일부 위원의 정책 스탠스 변화도 확인
3/19	**중국,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승인…대중 수출 일부 재개 신호** • 중국 당국이 바이트댄스·텐센트·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의 엔비디아 H200 AI 칩 구매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지며 중국향 공급 재개 기대 부각. 엔비디아는 미국 수출 라이선스 확보 이후 H200 생산 재개 및 주문 접수 진행 중이며, 미 정부는 일부 물량에 한해 제한적 수출을 허용한 상태. 시장에서는 이번 승인으로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중국 AI 인프라 수요가 다시 반영될 가능성에 주목
3/20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이사회 사임…AI 칩 밀수 혐의 여파** •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 공동창업자 윌리 리아우,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해 엔비디아 AI 칩이 포함된 서버를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되며 이사회에서 사임. 해당 사건은 동남아를 경유해 수십억달러 규모 서버를 우회 수출한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회사는 직접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인사를 직무 정지 및 계약 해지 조치하고 수사에 협조 중이며,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 상황
3/23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시 호르무즈 전면 봉쇄 경고** • 이란 혁명수비대(IRGC), 미국이 자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경고. 미국 관련 기업과 중동 내 에너지·인프라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에너지 시설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중동 긴장 및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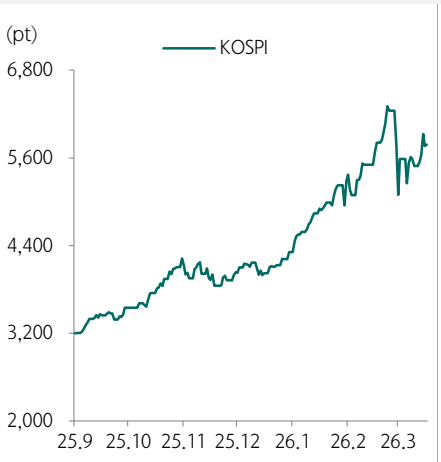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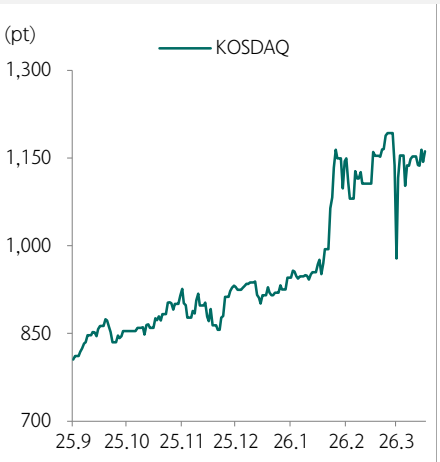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2	3	4	5	6
NCLH	CRWD, PLUG	AVGO, RGTI	CIEN, COST, KR	
9	10	11	12	13
HPE	ORCL, AVAV		ULTA, ADBE	
16	17	18	19	20
DLTR	LULU, TME, OKLO	MU	BABA, FDX, ACN	CCL
23	24	25	26	27
	LUNR			
30	31			
	N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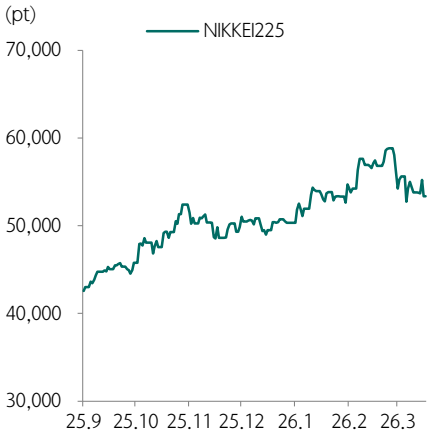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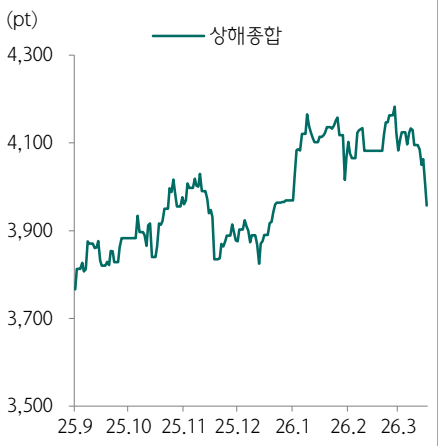
3/24(화)	• 미국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1.6) • 미국 3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1.7)
3/25(수)	• 미국 3월 3주차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3/26(목)	• 미국 3월 3주차 신규/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3/27(금)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 미국 3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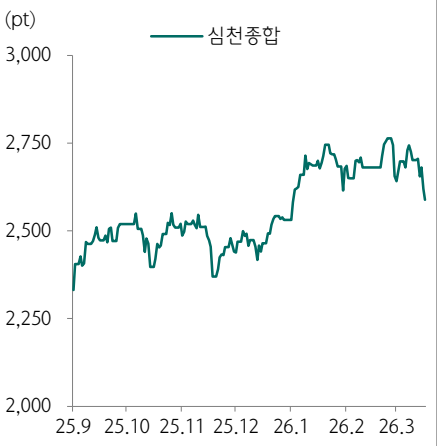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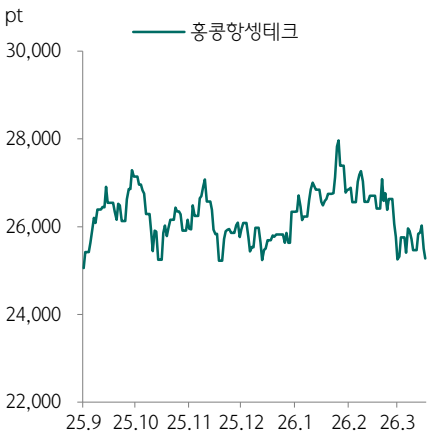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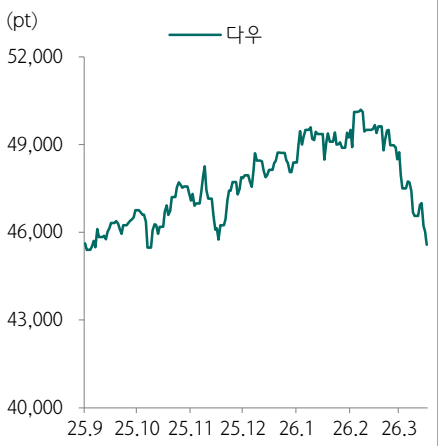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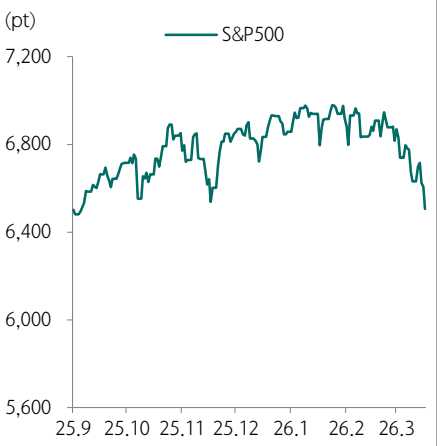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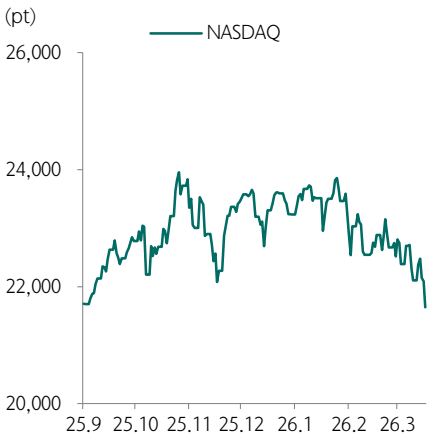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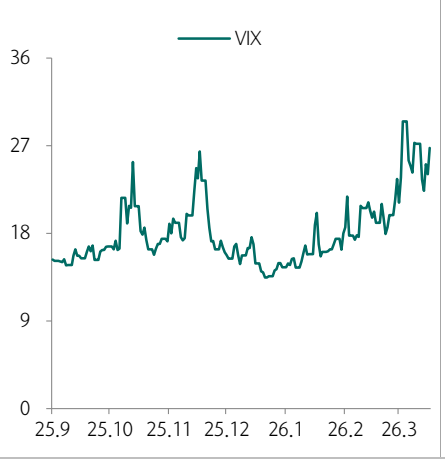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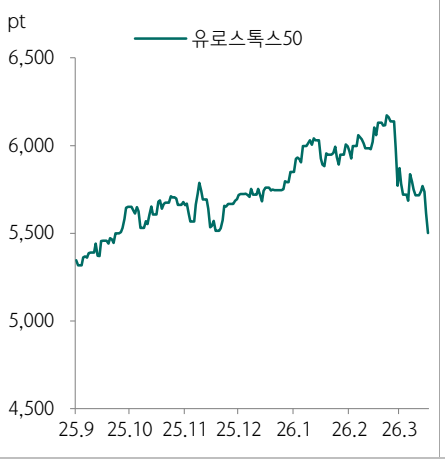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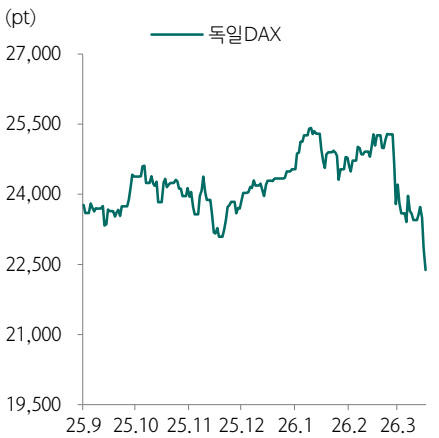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pt)
S&P5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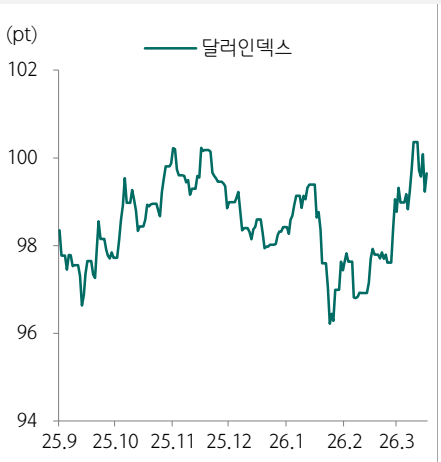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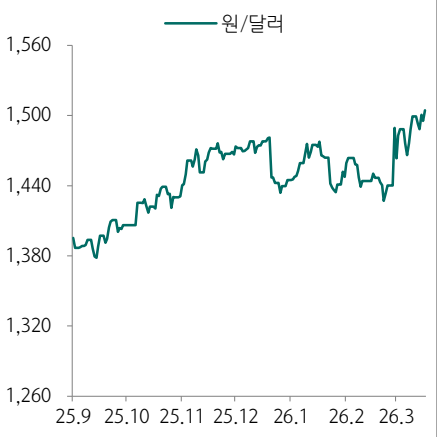

VIX
36
27
18
9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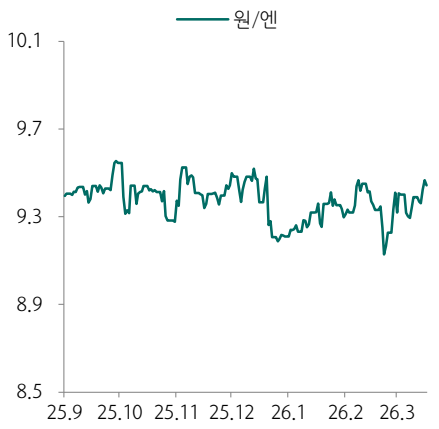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4,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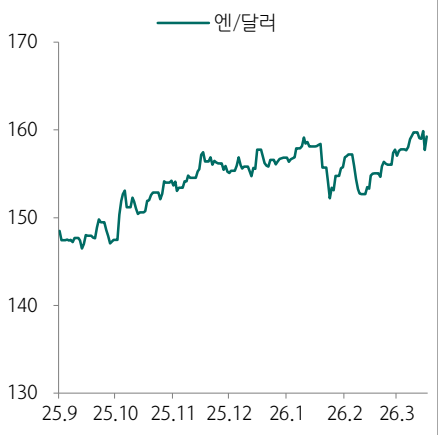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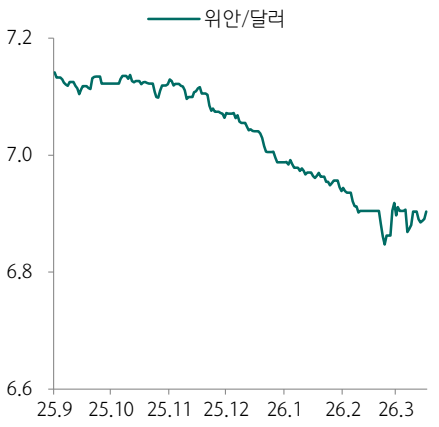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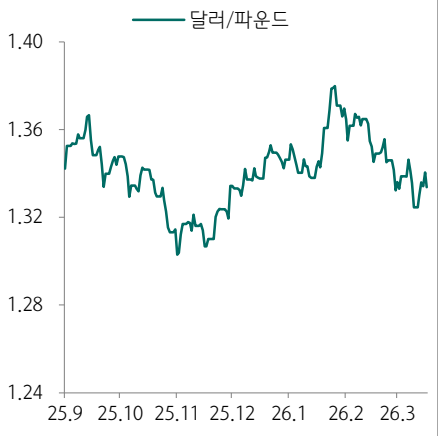

원/달러
1,560
1,500
1,440
1,380
1,320
1,26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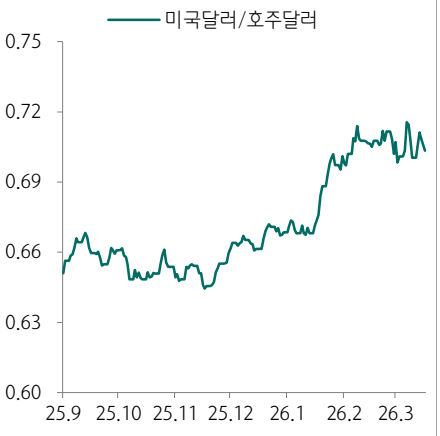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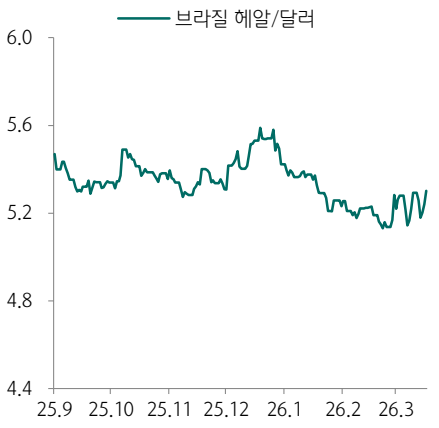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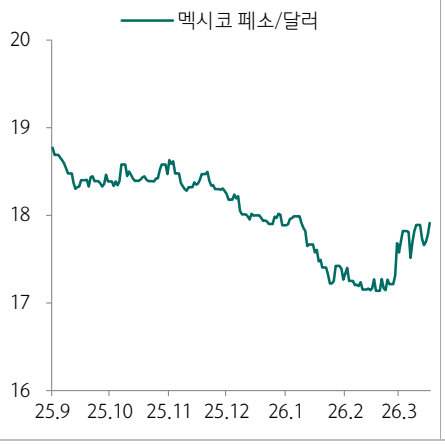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위안/달러
7.2
7.0
6.8
6.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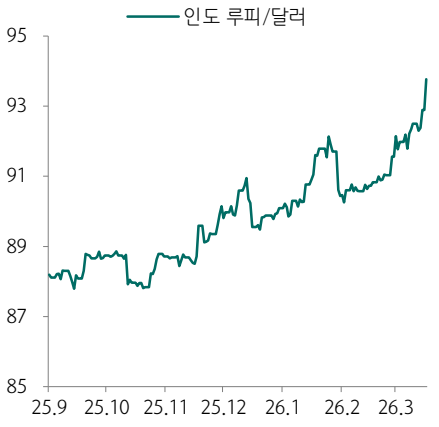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미국달러/호주달러
0.75
0.72
0.69
0.66
0.63
0.6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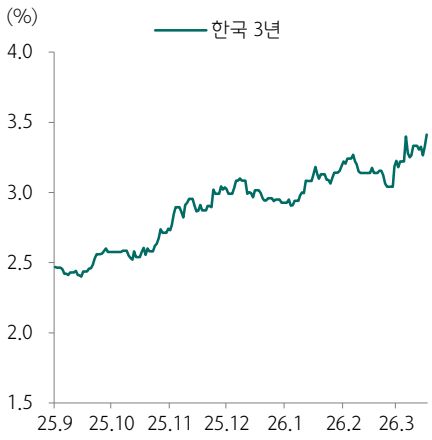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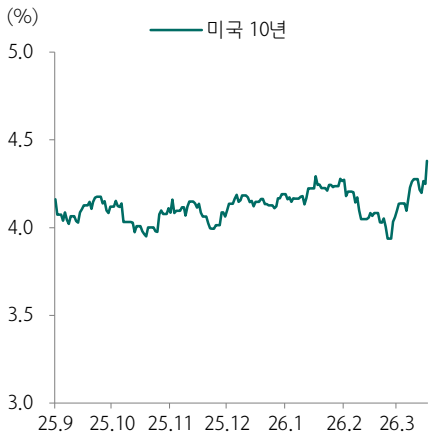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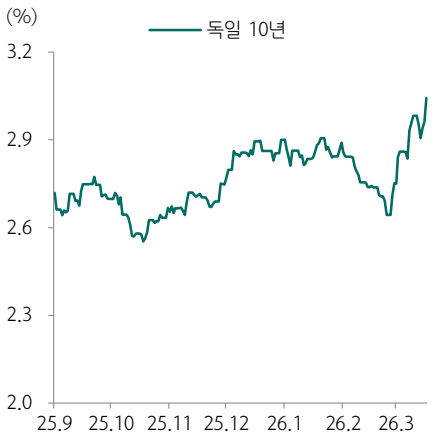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5
80
75
70
6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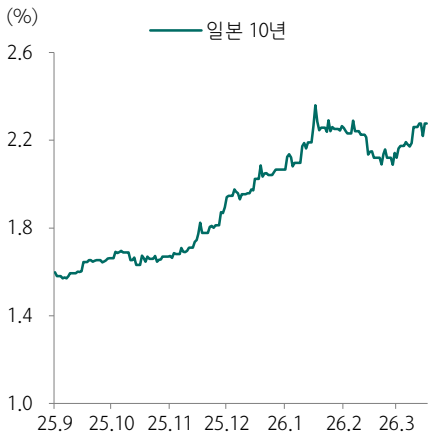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5
93
91
89
87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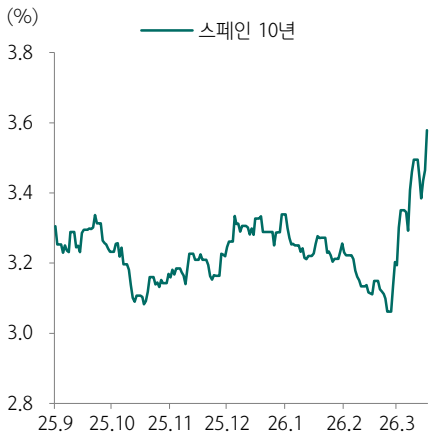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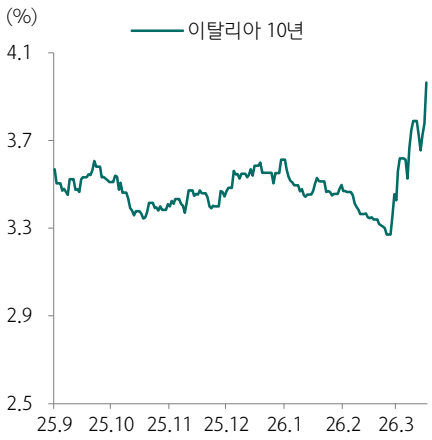

(%)
한국 3년
4.0
3.5
3.0
2.5
2.0
1.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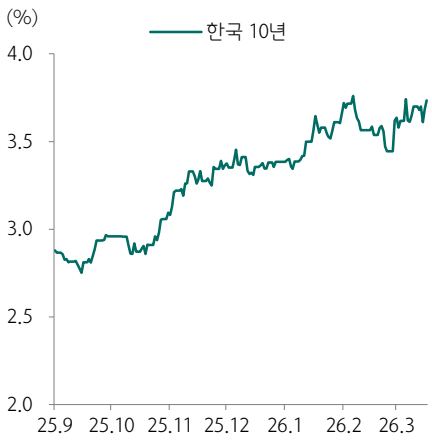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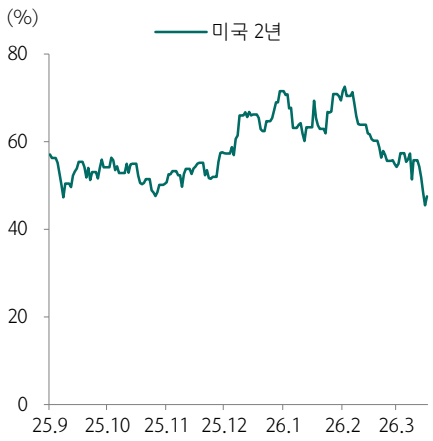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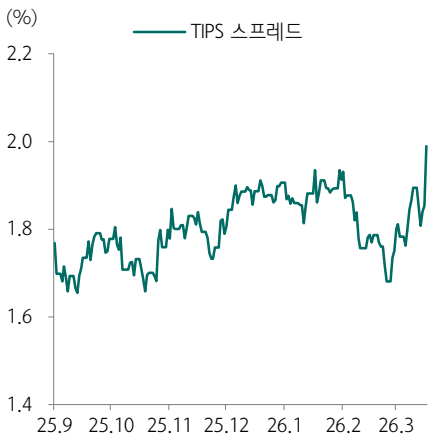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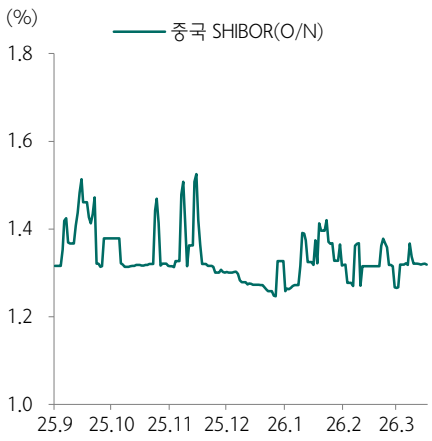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8
3.6
3.4
3.2
3.0
2.8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이탈리아 10년
4.1
3.7
3.3
2.9
2.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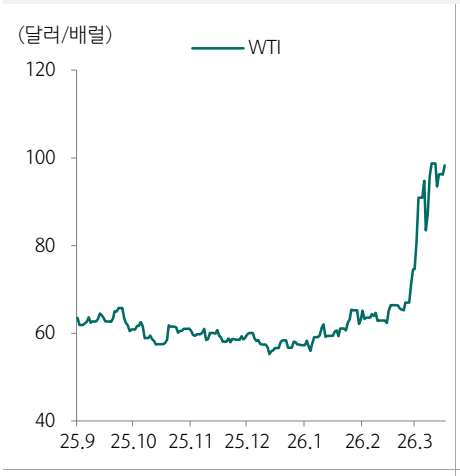

(%)
한국 10년
4.0
3.5
3.0
2.5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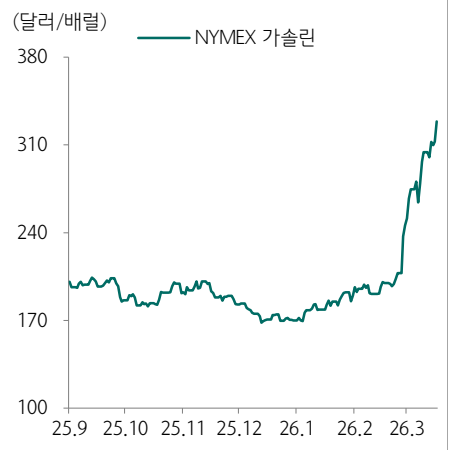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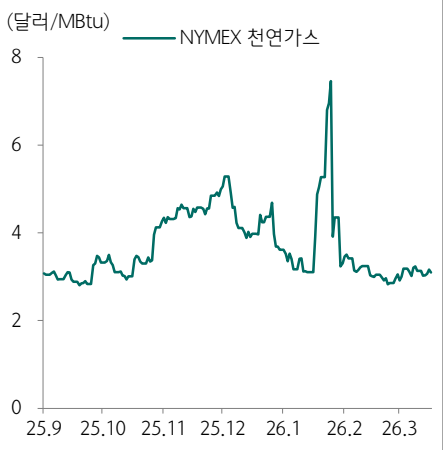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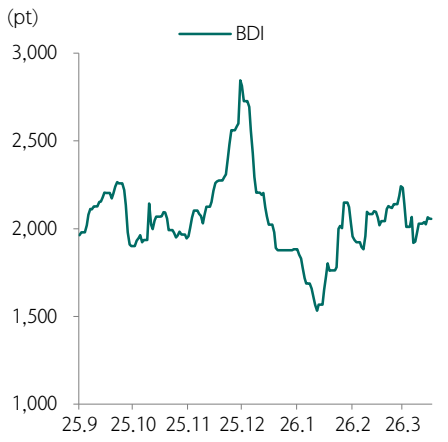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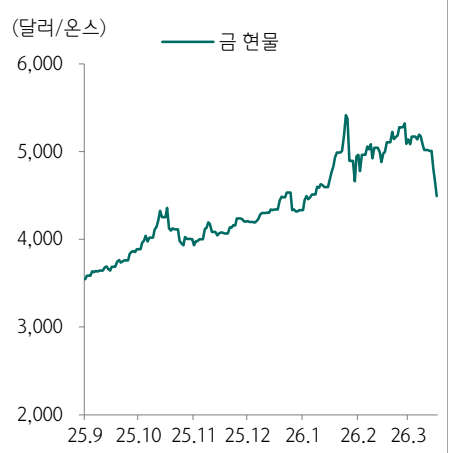
(달러/배럴)
브렌트유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배럴)
두바이유
160
140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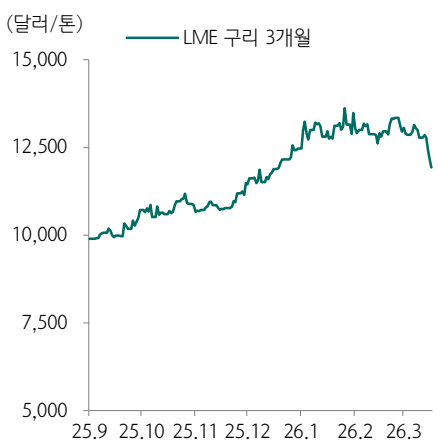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380
310
240
170
1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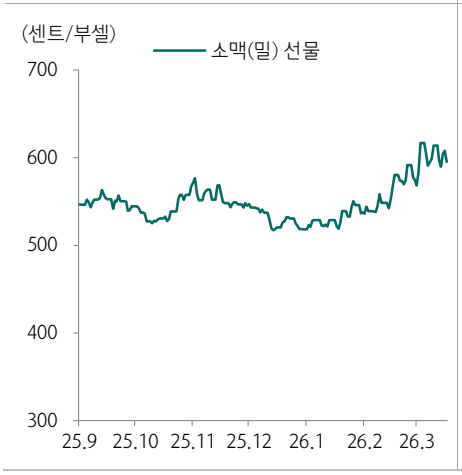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pt)
BDI
3,000
2,500
2,000
1,500
1,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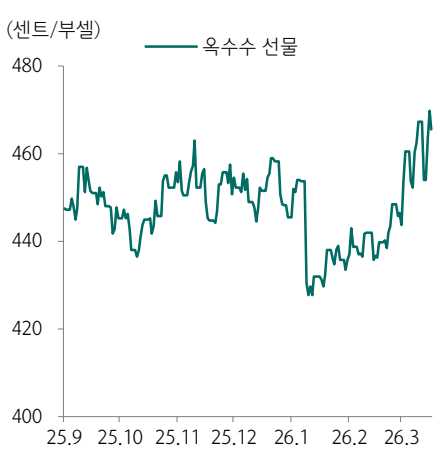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480
460
440
420
4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3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